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드류리(Drewry), '컨' 운임지수(WCI) 1.7% 하락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WEF, 블록체인을 탄력적 공급망 구축의 핵심으로 지목
2. 전자상거래, 태국에서도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부상
3. 미국, 수입 불확실성에 따른 태평양항로 서비스 협상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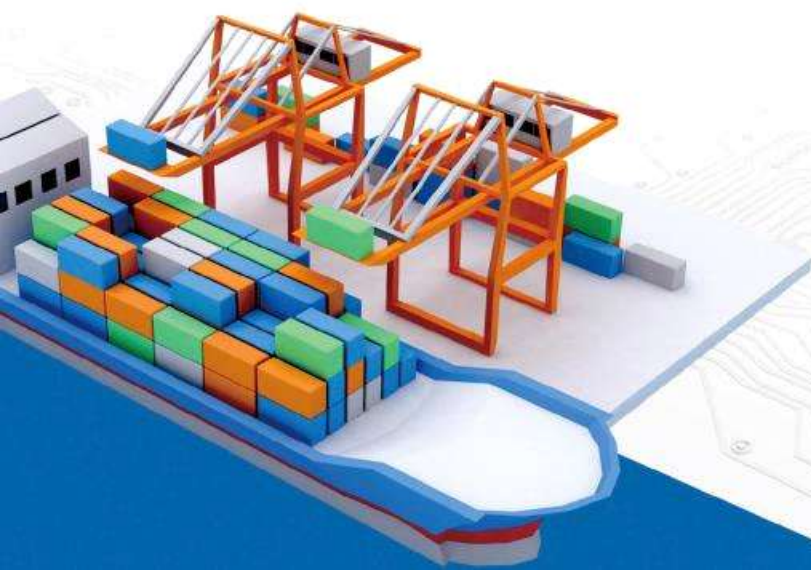
공지사항

-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대상 기업 모집

명사 스피치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만 이용자의 편의가 높아지고 무역항 이용의 안전과 질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2020. 4. 21. /부산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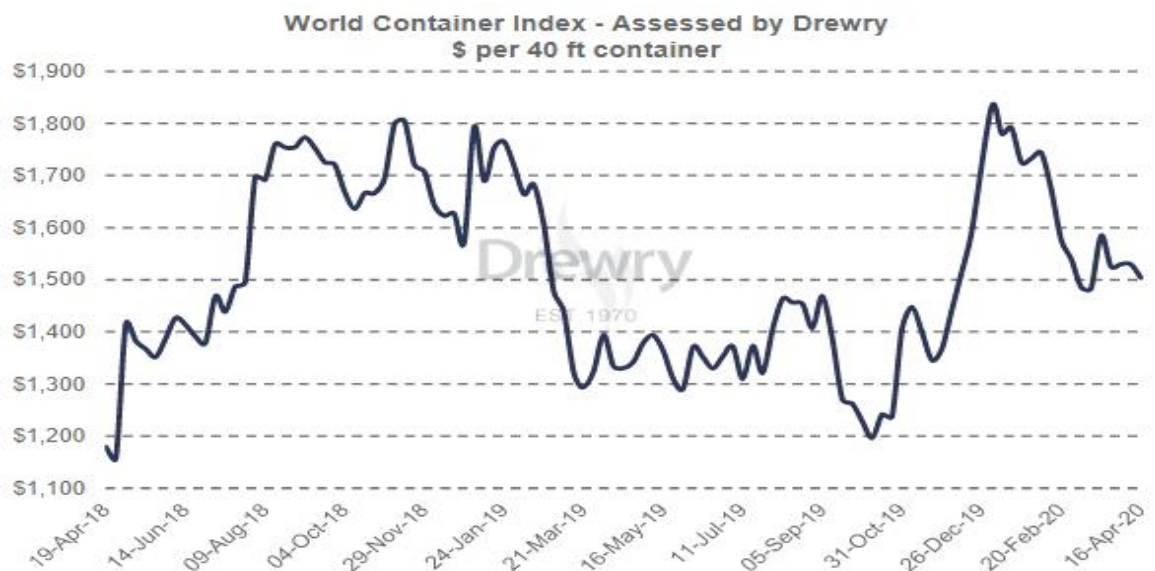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드류리(Drewry), '컨' 운임지수(WCI) 1.7% 하락

- 드류리(Drewry)에 따르면 4월 16일 기준, 컨테이너운임지수(WCI : World Container Index)는 FEU당 1503.98달러로 지난 주 대비 1.7% 하락했지만 전년 동기대비 1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년 4월 기준, WCI 종합지수는 FEU당 1,627달러로 5년 평균인 1,380달러보다 247달러 높음
 - 뉴욕-로테르담 운임은 44달러(8%) 하락하여 504달러를 기록함
 - 상하이-로스엔젤레스 운임은 1,605달러로 6% 감소했으나 전년대비 7% 상승함
 - 로테르담-상하이 운임은 974달러로 5% 하락한 반면 상하이-로테르담 운임은 1,475달러로 3% 상승함
- 컨테이너운임지수(WCI)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컨테이너운임지수(WCI) 현황

(단위 : 달러/FEU)



자료 : 드류리(Drewry)

주 : 2020년 4월 16일 기준

■ 참고자료 : hellenicshippingnews.com, 2020.4.20

김한나 연구원

051-797-4588, h.kim@kmi.re.kr



WEF, 블록체인을 탄력적 공급망 구축의 핵심으로 지목

- 세계경제포럼(WEF)은 디지털화와 블록체인이 공급망 붕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사스, 에볼라,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 확산, 후쿠시마 원전 폭발, 세계 금융위기, 정치적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공급망 붕괴 위험이 커짐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참사로 해당 지역 인근에 위치한 제조업체에서 대부분을 공급하던 자동차 맞춤형 칩의 일종인 마이크로컨트롤러 생산 차질로 전 세계 공급량의 약 40% 감소해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음
 -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은 세계 무역 및 공급망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노동력 부족, 수급 문제, 국경폐쇄 등과 같은 물류 문제들은 전 세계 상품과 서비스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WEF 보고서는 이러한 공급망 붕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탄력적이고, 디지털화와 가시성이 높은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며 블록체인 기술이 해답이라고 언급함
 - 기업이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매,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운영 전반에 걸쳐 가시성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함
 - 분산형 블록체인 시스템은 공급자와 수요자 자신이 데이터 공유 권한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여 기밀을 유지하고, 네트워크 참여자 일부에게만 안전·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공급망의 가시성 제고뿐만 아니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
- 미국 오번(Auburn)대학 RFID연구소가 미국 국제 표준화 단체인 GS1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RFID 태그로 압축된 상품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망의 가시성을 높임
 -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나이키, PVH, 헬먼 케이(Herman Kay), 메이시스(Macy's), 콜스(Kohl's), 모직스(Mojix), 에버리 대니슨(Avery Dennison), SML, IBM 등이 있음
 - “체인통합프로젝트(CHIP:Chain Integration Project) 개념 증명”이라는 새로운 백서에서 블록체인 및 RFID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데이터 공유의 효과를 입증함
 - CHIP은 블록체인 기술이 EPCIS(Electronic Product Code Information Services)라는 GS1의 데이터 공유 표준과 결합하여 파트너가 데이터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함
 - 오번대학 RFID연구소 저스틴 패튼(Justin Patton) 소장은 CHIP은 소매업에서 정보교환의 미래 비전을 제공하고, RFID와 블록체인 기술의 교차점을 연구함으로써 오래된 프로세스와 기존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오류, 비효율성을 공급망에서 제거한다고 언급함

■ 참고자료 : supplychaindigital.com, 2020.4.6.; royalgazette.com, 2020.4.9.; mhlnews.com, 2020.3.6.

이연경 연구위원

051-797-4682, eklee@kmi.re.kr

전자상거래, 태국에서도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 부상

- 태국 전자상거래 기업 라자다(Lazada)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전자상거래 시장이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고 언급함
 - 현재 라자다는 약 5만개의 오프라인 중소기업을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이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태국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구매율이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임
 - 라자다의 판매 거래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100% 증가했으며, 2월 초부터 4월 초까지는 1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소비자들이 자택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온라인에 소비하는 시간이 더불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라자다는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한 유행병이 종식된 후에는 온라인 쇼핑이 태국의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 현재 라자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방문 당 평균 소비시간은 약 11분인데 이는 봉쇄(lockdown) 조치 이전보다 11% 가량 증가한 수준임
- 봉쇄 조치 이후에는 소비자들의 주요 구매품목이 위생 제품, 식품 보조제, 공기청정기 및 주방 용품 등을 위주로 변화함
 - 반면 스마트 폰 등의 IT 용품이나 고가의 의류에 대한 구매는 감소함
- 현재 라자다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당한 오프라인 기업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오프라인 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 등록비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음
- 라자다는 현재 약 20만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3월 한 달에만 2만 5천 개의 새로운 가맹점이 추가되었음
 - 라자다 부사장은 올 5월 말까지 2만 5천 개의 가맹점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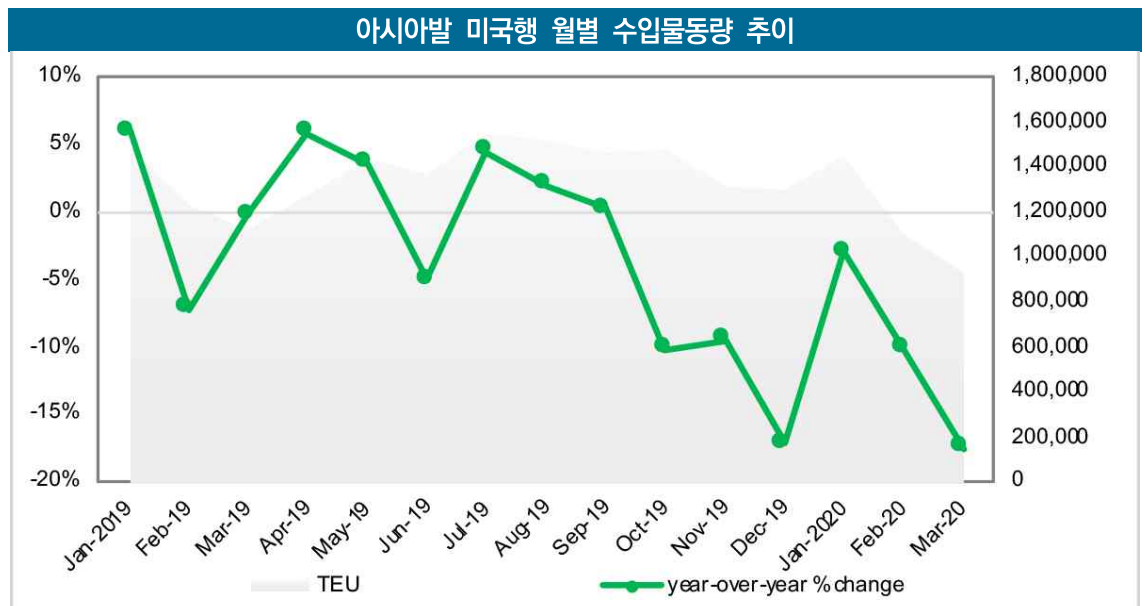
■ 참고자료 : bangkokpost.com, 2020.4.17.

신수용 부연구위원

051-797-4780, shinsy@kmi.re.kr

미국, 수입 불확실성에 따른 태평양항로 서비스 협상 돌입

-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아시아발 수입 화물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북미 지역 화주 및 선사 등은 5월 1일부터 시작될 서비스 계약에 대해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는 협상을 진행 중임
 - 4개 화주, 2개 선사, 4개 포워더 및 4개 컨설턴트가 참여한 올해 태평양항로 서비스 계약 협상에서는 향후 소비자 수요 및 유가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특히 2020년 3월의 아시아발 미국행 수입 물동량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장폐쇄 및 소비자 수요 급감 등으로 소매업체 및 제조업체가 비필수 상품에 대한 물량 투입을 철회함에 따라 전년 대비 17.5% 감소한 926,853TEU로 2013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또한 글로벌 포트 트래커(Global Port Tracker)에 따르면 5월(20.1%) 6월(21.4%) 수입이 전년대비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자료 : JOC

- 이에 따라 태평양항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사들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서안항로 150건, 동안항로 65건에 대해 운항취소 및 임시결항을 발표했으며 이는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 6월까지 아시아-북미서안 항로의 경우 기존 운항계획 대비 Ocean Alliance가 11%, THE Alliance 21%, 2M 22%를, 아시아-북미동안 항로는 Ocean Alliance 11%, TEH Alliance 및 2M이 각각 19%씩 임시 결항을 발표함
- 화주 및 비선박운항업자(NVOCC)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최저운임 보장에 유리한 협상을 진행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경제 여건의 안정성 회복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실정임
 - 코로나19로 야기된 소비자수요 급감에 따른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은 운임, 선사의 서비스약정 이행 실패, 화주의 최소수량선적(MQC) 달성 실패, 계약연장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논쟁을 완화시켜주고 있는 상황임
 - 한편 해상운임을 결정짓는 핵심요소인 MQC 측면에서 화주와 NVOCC들은 올해 하반기 수입물동량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선사는 고객사에 최적의 견적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특히 이번 협상은 지난 3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유가 하락세 및 5~6월의 물동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여름 성수기 및 신학기 대비 상품들에 대한 낮은 수요를 반영할 것으로 보임
 - 미 해운물류 전문지 JOC에 따르면 운송과 병커링 등을 포함한 올 인클루시브(all-inclusive) 서비스의 계약률은 4월 30일에 만료되는 지난해 계약률보다 약간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 JOC의 미국 내 소매업체 물류 담당자 인터뷰에 따르면 특히 3월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주요 병커링 항만에서의 저유황유 및 고유황유의 가격 급락으로 이번 계약의 총 운임(all-in rate)은 2분기 유가에 따라 7월에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¹⁾
 - 또한 가정 및 학교 등지에서 필요한 문구류의 경우에는 과거 주문량을 반영할 수 있으나 배낭, 의류 등 개학 여부에 따라 수요가 결정되는 물품 및 성수기 상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요 전망이 어려운 실정이며 협상에서는 이러한 여건 또한 반영될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 joc.com, 2020.4.17.; 2020.4.7.; 2020.4.13

김가현 전문연구원
051-797-4692, ghkim@kmi.re.kr

1) 참고로 2019-20년 서비스 계약요금은 서해안은 FEU 당 일반적으로 \$1,400~\$1,550, 동해안은 FEU 당 약 \$2,450~\$2,600이었음



공지사항

2020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수정공고

「2020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인 「2020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2020년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의 대상 기업 모집과 관련하여(20.2.24 시행)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 합니다.

	현 행	수 정
접수 기간	○ 2020.2.24.(월) ~ 2020.4.3.(금) 18:00까지	○ 2020.2.24.(월) ~ 2020.5.28.(목) 18:00까지

2020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 장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대상 기업 모집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와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를 조성하고자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2020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안내

1. 신청 대상자

-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2. 대상 사업

- ☐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

구분	사업 내용
일반진출형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인수합병형	현지 물류기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시설투자형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3. 지원내용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기술·재무·법률 등 측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지원규모)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일반진출형)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인수합병형/시설투자형)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타당성조사 보조금 지원 기준 〉〉

구분	지원 비용	지원비율
일반진출형	최대 5천만원	조사비용의 50%
인수합병형	최대 8천만원	조사비용의 50%
시설투자형		

□ (지원내용)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 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2020년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대상 모집 안내

1. 신청대상자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컨소시엄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대상 사업

- **(개념)**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 생산시설 판로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물량을 매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거점·네트워크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

□ 대상사업 유형 예시

- ① **(동시진출형)**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에 신규 생산시설·판로 확보,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물류기업은 신규로 진출하는 시장에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② **(화주주도형)**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물류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화주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③ **(물류주도형)**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화주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물류기업**과 협력하여 생산시설·판로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④ **(현지협력형)** 현지에 진출한 화주·물류기업이 협력하여 신규 생산시설·판로·물류거점 확대, 신규법인 설립 등 각자의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하는 경우

3. 지원내용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약 4천만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부담
 -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예정
 -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
 - (컨설팅 수행)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이 직접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컨소시엄 협의 하에 선정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
 -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컨설팅 전체를 위탁 수행 할 수 있음. 단, 컨설팅 전체 위탁 시에는 신청기업의 자체 활동 비용(예: 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지원 대상에 인정되지 않음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0. 2. 24(월) 09:00 ~ 2020. 5. 28(목) 18:00 까지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①	신청서 1부	서류, 전자파일 함께 제출	양식 1
②	사업제안서 10부	서류, 전자파일 함께 제출	양식 2
③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양식 3
④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행		
⑥	최근 3년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⑧	그 밖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컨소시엄 형태 신청기업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가산점) 유효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서(국토부 및 해수부 장관 발행) 제출하여야 함

□ 접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주소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해운·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USB) 동봉)

* e-mail 접수 불가

선정 기준 및 방법

□ 선정 기준

-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그로 인해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 개별 통지
- 신청기업은 7인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 (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사업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별도 형태의 자료(e.g. PPT, PDF 등)로 발표 가능

□ 선정결과 발표 : 평가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유의사항

-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붙임 참조)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설문에 응할 의무가 있음
- ☐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051-797-4774, 051-797-4913)로 문의 바람